

청와대 관람객 사로잡은 '대통령의 나무들'

-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대통령의 나무들 해설 프로그램에 관람객들 뜨거운 반응
- 청와대 수목 전문가 박상진 교수가 특별해설자로 나서 직접 해설도
- 본관의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도 총 관람인원 18만 명 넘겨

청와대 안 역대 대통령들이 심은 나무들을 전문가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수목 탐방 프로그램 : 대통령의 나무들'이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와대 경내 해설프로그램의 하나로, 청와대의 핵심 콘텐츠인 대통령의 역사와 풍부한 수목 자원에 대한 이해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표적인 기념식수 10그루를 차례로 돌며 해설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춘재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백나무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 백악교 옆에 높이 뻗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나무, 관저 앞 세 그루 소나무 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를 지나, 구본관 터 김영삼 대통령의 산딸나무, 본관 우측 앞에 위치한 노태우 대통령의 구상나무, 소정원에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팝나무와 이명박 대통령의 무궁화를 본 뒤 영빈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이즈카 향나무, 김대중 대통령의 무궁화까지 둘러보게 된다.

전체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상춘재 앞 투어 시작지점 안내판 앞에서 기다리면 된다.(매주 화요일 휴관일 제외)

■ '청와대 나무 전문가'인 박상진 교수의 특별 해설도 두 차례 진행

한편,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의 시작을 기념하여 청와대 내 수목 전문가인 박상진 교수(경북대 명예교수)가 지난 8일(토) 오전, 사전 신청한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특별해설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나무들에 얽힌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때로는 메모까지 하는 열성을 보였다.

청주에서 온 50대 참석자는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 공부와 더불어 수목 생태까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리학 박사이자 고식물학 전공이라고 밝힌 60대 참석자는 “책 ‘청와대의 나무들’ 저자인 박상진 교수가 참여해 프로그램 기획이 잘 되어 있고, 나무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며 좋은 평가를 남겼다. 박상진 교수의 특별해설은 7월 15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90분간)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 특별해설 2회차 참가자는 사전신청을 통해 기 확정됨

■ 청와대 본관 전시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도 관람인원 18만 명 넘어

청와대 본관에서 6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는 총 관람인원이 18만 명을 넘어서며(7. 9. 기준)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다룬 전시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으로 청와대만의 고유 콘텐츠인 ‘대통령들의 역사’를 관람객들이 더 실감나고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수목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개요

2. 관람 동선 및 권역별 대통령 기념식수

따로 붙임 ‘대통령의 나무들’ 특별해설 1회차(7. 8.) 현장 사진

담당 부서	청와대 관리·활용 추진단 청와대 관리·활용 기획과	책임자	과장	최영진 (02-3771-8631)
		담당자	서기관	박진석 (02-3771-8641)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新성장 4.0
상상을 현실로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청와대만의 새롭고 차별화된 탐방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와대의 특별함과 자연·휴식 공간으로서 청와대 체험 기회 제공
- (시작일시/회차) '23. 7. 1(토) / 매일 2회(11:00, 16:00)
- (대상/참여 방법) 청와대 일반 관람객 / 현장 자유 참여
- (탐방 내용) 대통령 기념 식수 35그루 중 수목 전문가가 역대 대통령별로 대표 나무 1그루를 선정, 전문해설사가 현장 해설 제공
 - * 역대 대통령 12분 중 윤보선 대통령은 기념식수가 없고, 최규하 대통령 기념식수는 청와대 입장게이트 밖에 위치(헬기장 인근)하고 있어 일반인 대상에서는 제외됨
- (권역별 대통령 기념식수) * 상춘재에서 집결, 투어 시간은 약 60분 소요
 상춘재 ⇨ 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 본관터



문재인 대통령 기념식수 동백나무



전두환 대통령 기념식수 백송



이승만 대통령 기념식수 전나무



노무현 대통령 기념식수 소나무



김영삼 대통령 기념식수 산딸나무

본관 ⇨ 소정원 ⇨ 소정원 ⇨ 영빈관 ⇨ 영빈관



노태우 대통령 기념식수 구상나무



박근혜 대통령 기념식수 이팝나무



이명박 대통령 기념식수 무궁화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수 가이즈카향나무



김대중 대통령 기념식수 무궁화

